여름 끝자락 지역공연과 함께 '하.하.하 페스티벌'

6개 예술단체 작품 25~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 바람꽃 연극 '만선' JS뮤지션스그룹 '재즈콘서트' 등

일제 강점기 암울한 현실에서 청년 시인 박용철 과 김영랑이 나눈 우정과 문학에 대한 열정을 연 극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작품은 용아와 영랑이 함께 문학잡지 '시문학'을 발간하는 과정 을 사실과 상상을 융합해 팩션화했다. 이들의 문 학적 우정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여름 끝자락, 지역우수공연과 함께 연극 '나두 야 간다'를 비롯해 재즈 콘서트, 3개 단체 협동공 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6개 예술단체가 펼치는 '하.하.하 페스티벌'을 마련했 다. 빛고을시민문하관 2층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 된 6개 예술단체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공연예술단체

에게 공연장 활동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창작환 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 선정 단체는 극단 문화예술공방 바람꽃 (북구청소년수련관 상주), 재즈악단 JS뮤지션스 그룹(북구문화센터 상주), 극단 까치놀(서구문 화센터 상주), (사)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 (남구문화센터 상주), 그린발레단(광산문화예술 회관 상주), 비상무용단(빛고을시민문화관 상 주) 등 6개 단체다.

먼저 25일 첫 공연은 극단 문화예술공방 바람꽃 의 연극 '만선'.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현실에서 바다로 자살 여행을 떠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극이다. 작품은 저마다 처한 고통을 이해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열린 제35회 광주연극제 최우수상, 신 인연기상, 우수연기상 등 3관왕을 수상한 바 있 다.

문화예술공방 바람꽃은 지난 2015년 청년 연극 인이 만든 극단으로, 재미있는 작품과 관객들이 찾는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단체다.

26일에는 JS뮤지션스그룹의 'JS재즈오케스트 라와 함께하는 감성만족 재즈콘서트'가 열린다. 스탠다드 재즈곡과 빅밴드 연주, 올드팝, 탱고, 대 중가요 등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젊은 재즈 뮤지션들로 구성된 JS뮤지션스그룹 은 재즈,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 융합을 토 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27일은 식민지 시대 호남의 대표 시인인 용아 박용철과 영랑 김윤식의 만난과 우정을 표현 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극단 까치놀의 연극 '나 두야 간다'는 용아와 영랑이 함께 문학잡지 '시문 학'을 발간하는 과정을 모티브로 했다. 극단 까치 놀은 37년 전통의 광주 극단으로 지역사회 연극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28일은 3개 단체의 협동공연 '발푸 르기스의 밤 Spring'이 관객을 찾아간다. 빛고을 문화예술공연위원회, 그린발레단, 비상무용단 등 이 참여한다.

먼저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가 '현악합주 를 위한 모음곡'과 영국 바로크 음악의 거장 헨리 퍼셀의 '압델라자르 모음곡', 영국 작곡가 존 루터 의 '현을 위한 모음곡' 등을 들려준다.

이어 그린발레단은 샤를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 트' 중 유명한 장면인 '발푸르기스의 밤'을 춤으로 표현한다. 신과 인간들이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환상의 밤을 묘사한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비상무용단은 'Spring'을 주제로 봄의 생동감과 화창함, 흥겨움을 춤으로 표현한

무료 공연이며 선착순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문의 062-670-746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재청은 박시양 (59·사진)씨를 국가무 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3

일 밝혔다. 함평 출신인 박 씨는 1980년 고법에 입문했 으며1989년부터김성래 전 보유자로부터 본격적

박시양 씨,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 됐다

으로 고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1991년부터 전남 도립남도국악단 연주자로서, 1995년부터는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원으로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전승 활동을 해 왔다.

이로써 판소리 고법 보유자는 정철호 ·김청만 씨 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고산문학대상 수상자에 현대시 김승희·시조 김일연





김승희 시인

김일연 시인

제21회 고산문학대상 수상자로 현대시 부문에 김승희, 시조 부문에 김일연 시인이 선정됐다. 수 상작은 시집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람', '깨끗한 절정'이며 상금은 각 2000만 원.

고산축전운영위원회는 23일 올해의 고산문학 상 각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고산문학대상은 고산 윤선도의 시 정신을 계승 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지난 1년 동안 출간된 시집을 대상으로 각 100여 명의 시인, 평론가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다.

서강대 국문과 명예교수인 김승희 시인은 소월 시문학상, 고정희 문학상, 한국 서정시 문학상 등 을 수상했으며 시집 '도미는 도마 위에서', 소설집 '산타페로 가는 사람' 등을 펴냈다.

김일연 시인은 한국시조작품상, 이영도 시조문 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달집태우기'. 시조집 '아프 지 않다 외롭지 않다' 등을 발간했다.

고산문학대상 신인상에는 시 부문 김미향 시 인, 시조 부문 김재용 시인이 선정됐다. 상금은 각 300만원.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15일 제21회 고산문 학축전 부대 행사로, 고산 고택이 있는 해남 고산 유적지 백련재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비상무용단 'spring'



극단 까치놀 '나두야 간다'

베토벤 250년만에 소리꾼으로 돌아온다

스윗뮤직가든, 28일 북구문화센터 '소리꾼이 들려주는 클래식Ⅱ'

베토벤이 250년만에 소리꾼으로 돌아온다.

스윗뮤직가든(대표 송선미·사진)은 지난해 클 래식과 국악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공연 '소리꾼이 들려주는 클래식'을 통해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로 관객과 만났 다. 올해는 베토벤의 곡으로 무대를 꾸민다.

'소리꾼이 들려주는 클래식Ⅱ- 베토벤 이야기' 가 오는 28일 오후 5시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이번 공연은 고전시대 위대한 작곡가 루트비히 반 베토벤의 삶을 판소리로 들려주고 보여주며 클 래식과 국악의 색다른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기

이날 공연에서 들려줄 곡은 베토벤의 사랑을 그



린 '그대를 사랑해'와 '아델라이데', 베토벤의 고 뇌와 절망이 엿보이는 피아노 소나타 '월광', '비 창'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 이야기를 다룬 'G장조 미뉴엣', '터키행진곡' 등을 들려준다. 또 지금까 지 사랑받고 있는 '엘리제를 위하여'와 베토벤의 고통과 절망을 초월한 교향곡 제9번 '합창교향 곡'도 선보인다.

총감독은 송선미 스윗뮤직가든 대표가 맡았으 며, 소리꾼 윤세린, 고수 박상준, 신디 김성종 등 이 무대에 오른다. 파이노 오지영, 바이올린 홍빛 나, 첼로 이신애도 출연하며 특별게스트로 바리톤 박설, 테너 김관식도 초청했다. 전석 1만원. 문의 010-4605-661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도심 속 시민 공간 만나기' 참여 인원 15명 선착순 모집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은 오 는 26일 오후 5시 지역문화교류마당 '광주, 도심 속 시민 공간 만나기'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한

지역문화교류마당은 문화도시 광주의 기반 조 성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류마당에서는 광주문화재단 정진경 팀 장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도 시문화집단 CS 정성구 대표가 청년 창업공간으로 리노베이션 한 '광주시민회관 Forest 971' 을 동 행하면서 해설해준다.

선착순 15명이며 차와 저녁식사 포함 참가비는 1만원이다.

희망자는 25일까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및 접수 062-234-272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